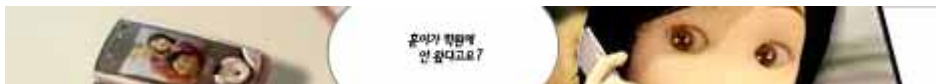




Home > 마켓 >> 경영

2007.11.01.18:03

ZOOMIN ZOOMOUT 휴대폰전송 E-mail 전송 프린트하기



[한국의 힘] 유비쿼터스 전문인력양성의 산실로

미래 · 지역산업 발전 위해 政 · 産 · 學 한 목소리

<대학> 연구인력 - <기업> 마케팅 결합으로 '시너지 창출'

‘기술인력 양성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기술력은 곧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는 만큼 기술인력 양성에 국가의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혁신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양성은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 요소다. 산학협력단은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산업의 특징점을 감안한 정책들을 발굴·확산해 이를 위한 특성화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재, 인적자원개발(HRD),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의 핵심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 능력과 대학에 고급두뇌를 활용함으로써 기술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거래를 활성화시킨다. 한편 벤처창업 및 신규 고용인력 창출 촉진 등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부문별, 학력별 인력수급 괴리와 고급기술 인력의 기술수준 미흡으로 구인난, 구직난이 병존하고 대학 및 연구소의 경우 기술기반형 신산업창출을 위한 법, 제도 장치 미비로 신산업창출이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각 대학별 특성화에 따른 유형개발과 재정지원과의 연계를 추진 중에 있으나 산학간의 연계를 감안한 일반적 운영 모델 개발은 미진한 상태다. 산학협력단을 산학협력정책 추진에 있어 대학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소는 과학기술부, 산업체는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제도개정,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R&D사업선정평가위원회에 기업 최고기술경영자(CTO)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지표 중 시장성, 사업화 성과 관련 지표 비중을 제고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HRD중심의 산학협력정책의 사고에서 벗어나 평생 동안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고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적자본 중심의 프로세스를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축으로 하는 우수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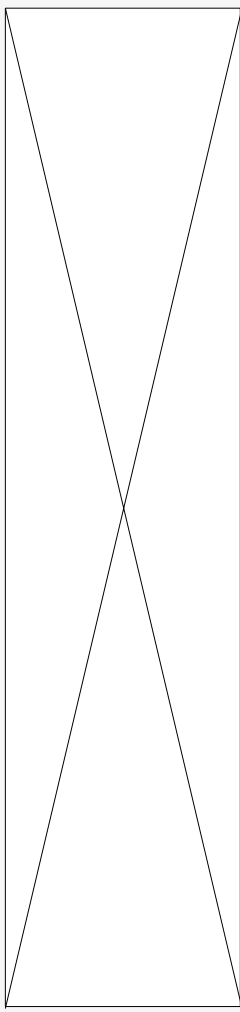
☒ 동서대학교 유비쿼터스 IT전문인력양성사업단

얼마 전만 해도 일반인에게는 생소했던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이제는 첨단 IT의 대명사가 되었다.

우리에게 쉽게 불리 올 수 있는 유비쿼터스가 있기까지는 그 숨은 공신들이 많다.

Market 마켓

- 경영
- 정보과학
- 중기·벤처
- 생활산업
- 오토·애드



헤럴드미디어 누리기자 모집

자세히 보기

코리아헤럴드 기사·사설 번역/음성



그 중에서도 생소한 이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개발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했던 양성 사업단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엔 부산지역 최고의 누리사업단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동서대학교 유비쿼터스 IT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단장 이훈재)이 있다.

본 사업단은 국가균형위원장상 2회, 부산시 우수사례 수상 등을 통해 대학가에서는 일찌감치 지명도를 얻고 있는 사업단이다.

본 사업단이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예견하고 발 빠른 준비 나선 적극성과 대학·산업체와의 원활한 협력체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이라 보고 있다.

본 사업단은 산업사회의 요구와 시대적 학문분야의 흐름에 실무능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유비쿼터스 IT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열악한 지역 IT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 대학내 학문분야간 경계와 대학간 지나친 경쟁구조를 완화함으로써 지역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양성 기반 및 산학협력체제 구축의 선행조건을 확립하고 대학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효과적 산학협력체제 구축 및 해외진출 기업을 통한 협력체제의 대외적 확산을 유도하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본 사업단은 u-IT교과과정 개선사업 및 u-IT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국제 창의적 전문 인력 양성사업, u-IT인력 장학 지원 사업, 그리고 u-IT시설장비 확보 사업 등 5대 사업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또한 유비쿼터스 특성화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산학공동 지역 혁신형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국제자격증 연계 교과과정 및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단순 어학연수를 지양하고, 첨단 u-IT관련 세계적 고급기술과 국제적 마인드를 습득하기 위한 해외 IT연수를 병행한 인턴쉽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혁신형 인력양성에 힘썼다.

그 결과 3개 참여대학이 지난 3년간 학생총원을 100%를 달성 하였고 본 사업을 통해 교원총원율, 취업률 등의 필수적인 지표 상승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기자재 및 전용시설의 확충,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교육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제자격증 및 취업의 질증 향상이 이루어졌다.

취업률 또한 우수학생유치를 통한 산학연계프로그램에 의해 3년 평균 79% 이상의 취업율을 보였으며, 취업자 중 66.7%가 지역산업체에 취업하였다.

한편 50여개 지역 IT업체와 공동프로젝트 수업을 수행하였고 30여개 지역 업체와 공동연구개발 및 20여개 지역 업체와 인턴쉽을 하였으며 u-IT 관련 기관인 u-IT NURI사업단, u-어플라인언스 RIC, u-체험관을 묶는 통합연계시스템 구축에 의한 인력양성/연구개발/고가장비지원 등 전방위 지원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동서대학교 유비쿼터스 IT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의 이훈재 단장은 이러한 발전이 거듭될수록 초심을 잃지 않고 본연의 자세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땀 것이라 강조했다. 미소 짓는 단장에게서 큰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다.